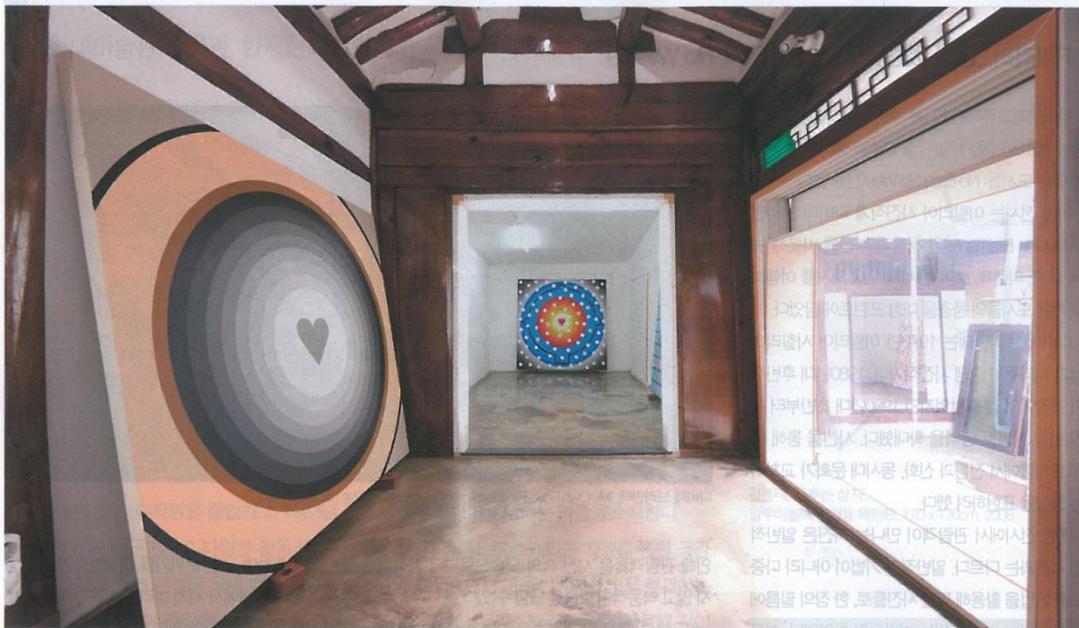


산업화된 색깔의 비명, 박미나의 '스크림(Scream)' 전

12 June, 2016

page 1 of 3

| 이색 전시



박미나, '스크림(Scream)'의 전시장. 사진 = 김상태

산업화된 색깔의 비명, 박미나의 '스크림(Scream)' 전

시청각에서 5월 17일~6월 30일 전시

윤하나기자 | valse@cnbnews.com

정사각형 캔버스에 정방형 동그라미가 규칙적으로 퍼져나간다. 각 동그라미의 다양한 색감이 파장을 만들어내고, 정가운데 귀여운 하트가 보일 때쯤, '어라? 뭔가 보인다!' 뒀 돌기가 코로, 양옆의 돌기가 귀로 보인다면 이제 가운데 하트는 목젓이 된다. 우리에게 스누피로 더 유명한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이 연상되는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아이는 하트 목젓을 내놓고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색의 파장은 소리를 따라 메아리치고 공간은 어느새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가득하다. 끔찍한 비명은 아난데, 어딘가 마음에 이동처온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옆길에 위치한 시청각에서 박미나 작가의 전시 '스크림(Scream)'이 5월 17일부터 열렸다. 전시 제목 그대로 비명을 지르는 아이 그리고 박미나를 시청각에서 만났다.

한옥을 개조한 신생공간 시청각에는 독특한 정취를 간직한 각 방마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 그림이 한 점 이상 놓였다. 100cm부터 180cm까지 5가지 크기의 정사각형 캔버스는 벽에 기댄 채 반대편을 향해 파동을 전한다. 어떤 방은 마주본 채 메아리를 이루고, 또 어떤 방은 나란히 서서 화음을 만들 듯 단란하다. 끝없이 소리치는 이 아이는 또 대체 무슨 사연으로 입을 다물지 못할까?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색의 산업화를 이야기한다"

작가들은 대개 자기의 생각을 연구하고, 자기표현의 한계를 실험하거나 자신의 시각이 반영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성향을 예술가의 전형이라 부른다면, 박미나는 단연코 '전형적이지 않은' 작가다.

박미나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마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일처럼 여겨져 불편하다고 고백한다. 그에겐 스스로를 남에게 내보이는 일보다 자기 밖의 세계가 훨씬 궁금하고 즐겁다.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보다, 오로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가지 객관화된 방식으로 시각화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그가운데 작가가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단연 색깔이다. 그는 색깔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갖 색들을 채집하게 됐다고 한다. 색깔의 채집과 분류는 그의 작품 공간을 이루는 큰 재산이자 작가의 취미다. 각 색깔별로 수백 개의 물감과 펜을 채집해온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대표 시리즈 '딩벳(Dingbet)회화'와 '색칠공부'를 작업해왔다.

작가의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바로 작가가 사용하는 색깔의 종류다. 그는 색깔을 섞거나 만들어 쓰지 않고 물감으로 생산된 색깔만을 그대로 고집해 사용한다. 이는 작가가 색깔을 수집·분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사업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하는지까지 추적해나간다.

찰리 브라운의 비명? 이야기보다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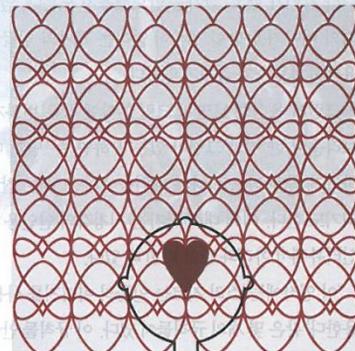
특히 덩벳 작업은 늘 가장 최신의 물감을 활용한다. 각 제조회사의 색 팔레트를 계속 확인하며 발전과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테면 2000년대 중반 반짝이가 들어간 물감의 제조가 정점에 달한 적이 있다. 그 시절의 작품에는 야광, 형광, 반짝이 물감이 주로 쓰였다. 아크릴 물감의 발전이 더디자 신상품 유휴 및 펜도 작품에 활용됐다.

시청각의 이번 스크림 전시에도 이런 최신 색의 반영이 이뤄졌다. 이탈리아의 어느 물감회사가 제조한 파스텔 색과 형광 오렌지색의 대비, 노란 펄이 들어간 흰색과 검은 색의 대비 등 당시의 색 경향을 적극 반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작가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의 이야기



박미나, 레인보우 스크림(Rainbow Scream), 2016, 사진 = 김상태



박미나, 오버랩 스크림(Overlapped Scream), 2016, 사진 = 김상태



박미나, 스크림(Scream)의 전시장. 사진 = 김상태



박미나, 스크림(Scream)의 전시장. 사진 = 김상태

